



연일 매우 나쁨 젯빛 공습이 만든 新풍속도

공기청정기·마스크 ‘불티’... 가전·유통 ‘즐거운 비명’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가전제품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구매했던 대표 클린가전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도 필수 가전제품 반열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마트는 역대 최초로 4월이 아닌 3월에 에어컨 행사장을 구성한다.

이마트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국 120여개 점포에 ‘공기청정 에어컨’ 특설 행사장을 구성하고 공기청정 에어컨 및 미세먼지 관련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표 모델로는 삼성 2019년형 무풍걸러리, LG 듀얼 에어컨 등을 준비했으며 행사 기간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된 에어컨,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등 미세먼지 관련 가전을 2개 이상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6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가 이처럼 평년보다 한 달 앞당겨 3월부터 본격적인 에어컨 행사장 구성에 나선 것은 미세먼지, 무더위 걱정으로 인해 1~2월 에어컨 매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에어컨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15.2% 늘어났다. 특히, 2월의 경우 매출신장률이 134.2%를 기록해 79.2%를 기록한 1월보

공기청정기·의류관리기 등 관련 제품 판매 2배 이상 쏘아 올린 미세먼지 마스크 625% 급증 세정제·눈 건강용품 수요 ↑ 홈카페 등 취미용품도 인기 온·오프 쇼핑물 기획전 구성

다 매출 증가폭이 커졌다. 영하를 넘나드는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선혁 이마트 대형가전 팀장은 “에어컨이 단순 냉방기능을 넘어 집안 공기까지 관리해주는 ‘올인원 에어컨’으로 거듭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해 3월 초부터 에어컨 행사를 준비했다”며, “저렴한 가격에 에어컨을 구입해 봄철 미세먼지와 여름철 더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6일 연속으로 수도권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 또한 급증하고 있다.

대표 온라인쇼핑사이트인 G마켓과 옥션, 그리고 트렌드라이프 쇼핑사이트 G9가 최근 5일 동안(2월28일~3월4일) 미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잇따라 발령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세먼지 관련 상품의 판매신장률을 살펴본 결과, 전주 동기(2월21일~2월25일) 대비 최대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서는 미세먼지 창문필터가 4배(300%), 황사·독감마스크(256%)와 산소발생기(238%) 판매량이 각각 3배 이상 늘었다. 공기청정기 렌탈상품(160%) 및 차량용 공기청정기(188%) 판매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고, 일반 공기청정기도 59% 급증했다. 이 밖에 손소독기(25%)와 공기정화식물(26%) 등의 판매도 모두 늘었다.

옥션도 같은 기간 황사·독감마스크 판매량이 3배 가까이(194%) 증가했고, 차량

용 공기청정기(106%)와 눈건강·렌즈관리용품(135%)이 2배 이상 신장했다. 손소독기(76%)와 구강청결제(58%), 공기청정기(42%), 스타일러(32%) 등의 판매도 모두 증가했다.

해당 기간 G9는 관련 용품 판매가 최대 7배 이상 급증했다. 황사·독감마스크(625%), 공기청정기(235%)를 비롯해 가전 필수템인 스타일러(89%)와 핸드워시(77%), 거품형 손세정제(78%)의 판매가 모두 늘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몰에서



는 관련 프로모션을 발빠르게 선보이고 있다. G마켓은 ‘미세먼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상설기획관을 마련하고, 마스크, 공기정화식물, 가전, 세정제 등 관련 용품을 총망라해 할인가에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 ‘지앤코스 KF94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50매’, ‘보만 3중 필터 음이온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식물 에어플랜트 애플’, ‘데틀 손소독겔’ 등을 선보인다.

옥션은 ‘미세먼지 대비 프로젝트’ 상설관을 열고, 다양한 미세먼지 대비 용품을 할인가에 판매한다. G9 역시 ‘미세먼지 심한 날 집밖은 위험해’ 테마관을 열고, 미세먼지를 피해 집에서 즐기는 좋은 취미 활동 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외출이 어려운 요즘 홈카페족을 위한 ‘집에서 홈카페’ 테마 등 미세먼지 관련 용품을 구매 테마에 맞춰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경보에 본격적인 봄 황사철이 오기도 전에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미세먼지 수혜株 어디?

공기청정기 대우위니아 상승세 웰크론 등 마스크 제조업 ‘부각’

고농도 미세먼지가 잇따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미세먼지 수혜주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코스닥시장에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대우위니아는 전일보다 24.14% 급등한 3625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 대우위니아는 장 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위닉스는 전 날보다 11.93% 상승한 1만8300원에 마감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실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기청정기는 방과 거실에 설치가 필요한 제품이 돼 가면서 관련 시장이 2016년 100만대에서 2017년 150만대, 지난해 210만대 규모로 급속히 커졌다”며 “공기청정기 1위 업체 위닉스는 올해 창립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용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웰크론(2.55%), 오공(1.53%)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필터 업체 크린앤사이언스(4.27%) 등 미세먼지 관련 종목도 오름세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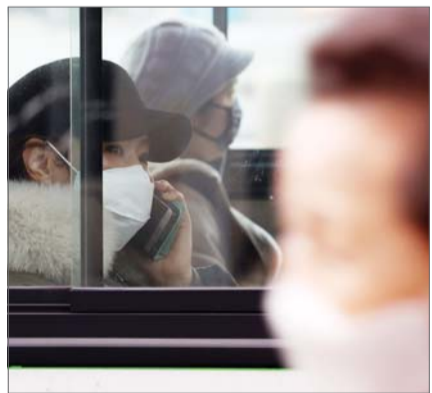
KF, 높다고 좋은 거 아냐... 호흡량 고려해야

(마스크 차단 성능)

식약처, ‘KF 80’만으로도 효과 충분 세균 오염 우려, 1회 사용후 폐기해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큰 마스크는 그만큼 숨쉬기가 힘들 수 있어서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상 처음으로 6일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초미세먼지 공격에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 정보를 6일 제공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손진영기자 son@

우선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 80’ ‘KF94’ ‘KF99’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95개사 543개 제품이다.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μm(머리카락 지

름의 약 1/6) 미만,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μm(머리카락 지름의 약 1/25) 미만이기 때문에 KF80 만으로도 초미세먼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세경 기자 selee@

피부 모공도 뚫는다?... “얼굴 주름악화 촉진”

초미세먼지 노출이 누적될수록 얼굴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이종희 교수팀은 피부질환이 없는 건강한 자원자 188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얼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14일 동안 매일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부

작용으로 추정되던 피부 노화를 건강한 자원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첫 연구로, 유럽피부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5.8세로 남성이 32명, 여성이 156명이었다. 이들은 실험 참여 당시 아무런 피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고, 이 앱으로 매일 얼굴 사진을 찍어 주름, 색소침착, 피부 트러블을 자동 기록하도록 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와 주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가 1일차 -0.08, 3일차 -0.14, 5일차 -0.19, 7일차 -0.21, 9일차 -0.22, 14일차 -0.23 등으로 초미세먼지 노출이 누적될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커지

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모공을 뚫고 피부 속으로 침투하면서 과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점진적인 피부 노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될 것으로 봤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매일매일의 초미세먼지 침착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잔주름 등의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기자 parku7854@